

선재동자의 구법 행위에 나타난 역량 탐색

나 정* · 이 영 림(범우)**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2500년이 넘도록 인간의 삶의 등불이 되고 있는 불교가 소위 다음 세 대라고 할 수 있는 동자를 통해 어떤 능력을 지향하고 있으며, 시대 변화의 흐름과 교육적 대응 속에서 그 능력이 미래사회의 역량에 시사하는 바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먼저 동자의 의미와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구도행을 알아보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교육과 관련하여 제시한 UNESCO, OECD, 미국심리학회, 우리나라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선재동자의 구법 행위에 나타난 역량은 초발심, 일상에서의 실천, 집착 없는 회향, 그리고 선업 정진이었다. 이를 토대로 선재동자의 구도 행위와 여타의 역량 개념이 지식, 특히 실천적 지식 역량과 자신에 대한 성찰 즉 메타 인지 역량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미래사회에서는 선재동자가 보여주는 초발심과 같은 목표 설정, 회향과 같은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삶, 꾸준한 정진, 평등한 인식과 같은 역량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불교의 가르침이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미래사회에서도 인간의 삶에 의미 있는 종교로서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를 가늠해 보는 작은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미래사회, 역량, 화엄경, 선재동자, 구법 행위

* 동국대학교(경주) 불교아동보육학과 부교수, 제1저자. nana34@hanmail.net

** 동국대학교(경주) 불교문화대학원 불교상담학과 초빙교수, 교신저자. child-b@hanmail.net

I. 들어가며

붓다와 같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은 시간을 초월한다. 지금도 많은 인간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등의 팔정도를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따라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불확실하고 급변하기 때문에, 또 AI가 생활의 상당부분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예상 할 수 없는 미래사회에서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또 그런 미래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다음 세대가 미래사회에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길라잡이를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 너무나 빠르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사회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념으로 조망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시대에 필요했던 능력으로는 미래사회를 잘 살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21세기 역량으로 Roberta & Kathy는 비판적 사고나 문제해결처럼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제안하였다.¹⁾ 또 “21세기 스킬 파트너십(P21) 위원회”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 핵심 역량은 최상의 성취와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학습 경험으로 1) 개인의 내재적 열정에 기반한 학습에 대한 강도 높은 도전, 2) 외부의 집중적인 보살핌과 개별화된 지원(엄격하면서도 자상한 코치, 영감어린 학습 안내), 3) 실패에 대한 전적인 용납을 제시하였다.²⁾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 그리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하고 강조되었던 지식이나 기술 중심의 능력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미래사회,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바로 역량이다. 역량이라는 용어는 특정 직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지칭하는 것으로부터 지식과 기능, 태도와 가치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까지도 지칭하는 매우 난해한 개념이다. 따라서 역량은 지금까지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여겨진 지식이나 기술과 비교하여 어

1) Roberta M. Golinkoff & Kathy Hirsh-Pasek, *Becoming Brilliant: What Science Tells Us About Raising Successful Children*, 김선아,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형 인재를 만드는 최고의 교육』(서울: 예문아카이브, 2018), 71쪽.

2) Bernie Trilling & Charles Fadel, *21st Century Skills: Learning for Life in Our Times*, 한국 교육개발원, 『21세기 핵심역량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스킬-』(서울: 학지사, 2012), 36쪽.

면 차이가 있는 개념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역량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OECD의 DeSeCo 연구에 의하면, 역량이란 고도의 복잡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인지적인 능력은 물론 동기와 윤리, 사회적, 행동적 영역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 학습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 가치와 신념체계, 습관과 심리적 특성도 포함한다. 반면에 지식은 학습, 조사, 관찰과 경험에 의해 습득하는 사실과 개념의 집합체이다. 또 기능은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은 과업을 다소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³⁾ 따라서 역량은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더 복잡하고 포괄적이며 상위의 개념이다.

그렇다면 2500년이 넘게 우리 인간의 삶에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불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특히 미래사회를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역량과 관련하여 불교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붓다는 특별히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양육하라는 가르침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자(童子)”라는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을 통하여 어떻게 깨달음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재동자(善財童子)는 문수보살을 시작으로 53선지식을 찾아 천하를 돌아다니며 보살도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금강장도랑에 있는 보현보살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고 법계에 들어간다. 선재동자의 이러한 보살도 실천은 자리리타(自利利他) 정신과 자력(自力)을 통해서만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수행의 체계에서 미래사회의 역량에 새로운 대안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OECD나 UNESCO 등은 미래사회에서의 인류의 생존과 더 나은 삶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역량을 연구하여 개념을 명료화하고 있다.⁴⁾ 또 많은 국가들이 역량을 교육과 연계하여 다음세대의 미래사회 삶에 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자질과 능력의 3개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앞으로의 교육은 1) 살아가고 일할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2) 미지의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고력·판단력·표현력 같은 역량 육성 3) 배움을 삶에 활용하려는 학습의 힘, 인간상 함양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⁵⁾

3) 나정, 「OECD 유아교육과정 유형에 비추어본 우리나라 유치원교육과정 특성」 『아시아교육연구』 10(2)(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9), 80쪽 재인용.

4) 이미경 외 6인, 『21세기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 OECD Education 2030 -』(한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12-14쪽.

5) 이찬승a, 「역량의 바른 이해와 역량교육의 바른 접근」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8년 2월 8일자 칼럼(서울: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8), 1-14쪽; 이찬승b, 「역량 교육 관련 8가지 핵심 질문에 답하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8년 2월 22일자 칼럼(서울: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8), 1-22쪽.

싱가포르나 핀란드, 캐나다 등도 지금까지의 교육내용과 방법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다음세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진단하고, 제4의 길을 모색하여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국가들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행하는 교사들을 먼저 변화시킴으로서 다음 세대가 미래사회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⁶⁾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5년에 개정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6가지 핵심역량을 총론에 명시하고 이를 교과 교육과정에서 연계시켜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⁷⁾ 이는 다음 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의 교육을 배움과 삶을 연계할 수 있는 핵심역량으로 명시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의 흐름과 교육적 대응 속에서 본 연구는 2500년이 넘도록 인간의 삶의 등불이 되고 있는 불교가 소위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동자를 통해 어떤 능력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능력이 미래사회의 역량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모색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불교와 관련하여 동자를 중심으로 선행된 연구(강소연, 2014; 고정은, 2014; 김용덕, 2010; 나정·이영림, 2016; 박부숙·이수경, 2016; 여은경, 1990; 이강옥, 2015; 조명렬, 1999; 해주, 2003)의 수는 동자의 역사(歷史)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그리고 『화엄경』 「입법계품」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다룬 연구(권은주·정도진, 2017; 김찬성, 2016; 안형관·전영숙, 2000; 정대련, 1999; 조서현, 2017; 최효순, 2016)는 최근에 연이어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 그 수가 적다. 즉 불교와 교육을 접목하여 구체적으로 선재동자와 역량을 직간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먼저 동자의 의미와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구도행을 알아보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교육과 관련하여 제시한 UNESCO, OECD, 미국심리학회, 우리나라의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선재동자의 구법 행위에서 나타난 역량을 탐색하고 미래사회의 역량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불교의 가르침이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미래사회에서도 인간의 삶에 의미 있는 종교로서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를 가늠해 보는 작은 시도라고 할 수 있다.

6) Andy, Hargreaves & Dennis, Shirley, 『The Global Fourth Way』, 이찬승·홍완기, 『학교 교육 제 4의 길』 (서울: 21세기교육연구소, 2015), 113-343쪽.

7)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한국: 교육부, 2015), 2쪽.

II. 『화엄경』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구도행

1. 동자(童子)의 의미

불교에서는 동자의 개념에 대해 복합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남해기귀내법전』에서는 “오로지 불전을 염송하면서 삭발하기를 희망하고 필경에는 스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동자”⁸⁾라고 하였다. 이처럼 사찰에서 법도를 따라 살지만 아직 삭발을 하지 않고 구족계를 받지 않아 정식스님이 아닌 사람을 동자라고 하였다.

불교에서 보는 동자의 의미에 대해 연령범주, 명칭, 역할, 유형, 지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동자의 연령범주는 보통 4세 또는 8세 이상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한다.⁹⁾

동자는 성별에 따라 어린 남자아이를 동자(童子), 어린 여자아이를 동녀(童女)라고 부른다. 또한 이를 동아(童兒), 동진(童眞), 동남(童男), 천동(天童)이라 한역하며, 범어 구마라(鳩摩羅)·구마라가(鳩摩羅伽)¹⁰⁾ 등으로 음사한다.

동자의 역할은 부처님이나 보살 및 제천 등을 받드는 시자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문수보살을 시종드는 8대 동자로 청소(請召)·계설니(計設尼)·구호혜(救護慧)·오파계설니(烏波計設尼)·광망(光網)·지혜당(地慧幢)·무구광(無垢光)·부사의혜(不思議慧)가 있고 부동명왕을 호위하는 8대 동자가 있다.¹¹⁾ 또는 사찰에서 여러 가지 잔심부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법회 의례 시 보조역할자로서 화관(花冠)을 쓰고 행렬에 참여하거나 혹은 장엄공양구인 변(幡)을 들고 등장한다. 일상에서는 큰스님이나 노스님들이 외출 시 함께 동행하기도 한다.

동자의 유형으로는 먼저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재동자(善財童子)가 있으며,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에는 구법(求法)의 수행자로서의 선재동자를 담고 있다. 그 밖에 남순동자(南巡童子), 월광동자(月光童子), 향광동자(香光童子), 설산동자(雪山童子), 공양동자(供養童子), 시동(侍童), 화동(花童)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명부

8) 『南海寄歸內法典』(大正藏 54, p.220中). “若專誦佛典 情希落髮 畢願緇衣 號爲童子.”

9) 가산 이지관 편저, 『伽山 佛教大辭林』 권5(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3), 309쪽. 『유가사지론』에서는 인간의 생애를 태내시기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8단계로 나누었다. 처태위(處胎位), 출생위(出生位), 영해위(嬰孩位), 동자위(童子位), 소년위(少年位), 중년위(中年位), 노년위(老年位), 모숙위(耄熟位)이며, 동자위는 영아의 단계를 거쳐 돌아다니며 놀 수 있는 나이에서부터 소년기 이전까지 해당한다.

10) 『大智度論』(大正藏 25, p.275中). “復次又如童子 過4歲以上 未滿二十 名爲鳩摩羅伽 若菩薩 初生菩薩家者 如嬰兒得無生法忍 乃至十住地 離諸惡事 名爲鳩摩羅伽地.” “또한 동자와 같나니 4세 이상 20세 미만의 남자를 구마라가라 한다. 보살이 처음 보살의 집에 태어나는 것은 영아와 같고, 무생법인을 얻어 십주의 지위에 이르러 모든 악한 일을 여의는 것은 동자와 같기 때문에 구마라가지라고 한다.”

11) 가산 이지관 편저, 앞의 책, 308쪽.

전의 유행으로 인해 대부분 명부와 관련된 시왕의 권속으로서 『예수시왕생칠경』에 선 악동자상이 등장한다. 이는 동자가 청정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심판받는 곳에서 이후의 갈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심판관이 그 죄를 밝힐 때 옆에서 증명하며 선악의 업을 기록하는 일을 도맡아 하였다.

동자는 보살(菩薩)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보살이란 “법왕(法王)이신 부처님의 지위를 계승하는 자로서, 법왕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법왕자라고 부른다.¹²⁾ 이는 보살의 다른 이름이다. 예를 들면, 세조의 병을 낫게 해 주었다는 상원사의 문수동자(文殊童子)가 문수보살의 화현이며, 보현동자(普賢童子)는 보현보살의 화현이다. 또한 동자는 모든 오염에 물들지 않고 한 순간도 악념과 악행에 빠지지 않으며, 음욕에 집착하지 않는 맑고 깨끗한 어린아이처럼 마음속에 청정함을 지니고 있다.¹³⁾ 보살도를 실천하려는 굳은 의지와 보살행을 실천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로 여겼다. 이는 동자를 미성숙한 어린아이로 보지 않고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현하는 보살의 화현으로서¹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감 없이 온전히 중생들에게 전하는 실천가라고 할 수 있다.

2.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구도형

『大方廣佛華嚴經(이하 화엄경)』 「입법계품」은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얻고자 보살도를 배우러 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적극적인 수행의 과정을 담고 있다. 『화엄경』을 해석하면 ‘크고 방대한 부처님의 세계를 보살행이라는 꽃으로 화려하게 장엄한 경’이라 하고 이러한 불보살의 화엄세계가 바로 법계이며 부처님 세계를 보살도로 발현하는 것이 법계연기(法界緣起)¹⁵⁾로서 화엄경의 근본사상이다. 즉, 화엄경의 핵심 교설은 여래출현과 보살도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대승경전에 속하는 『화엄경』은 60권과 8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한역 3부 중에서 화엄대경(華嚴大經)이라고 한다. 경 가운데 결론 부분인 「입법계품」의 위치는 60권에서는 제34품에 80권에서는 제39품에 실려 있다. 『화엄경』이 설해진 공간

12) 위의 책, 380쪽.

13) 『翻譯名義集』(大正藏 54, p.1060 下). “鳩摩羅伽 或云鳩摩羅駄 或云鳩摩羅浮多 此云童眞 亦云 毫童 亦云童子 熏聞云 內證眞常 而無取著 如世童子 心無深愛 卽法王子之號也.”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구마라가, 혹은 구마라타라, 구마라부다라고도 한다. 동진, 호동, 동자 등으로 번역된다. 「훈문」에 말하기를 안으로 참되고 향상된 도리를 증득하여 집착함이 없음이 마치 세속의 동자가 마음에 물들거나 애착함이 없이 천진난만한 것과 같으므로 법왕자를 일컫는 말로 사용한다.”

14) 임진광, 「불교경전에 나타난 동자상」 『불교동자상』(청주: 국립청주박물관, 2003), 256쪽.

15) 해주, 「『화엄경』의 선재동자」 『불교학연구』7(서울: 불교학연구회, 2003), 417쪽.

을 천상과 지상으로 나누는데, 「입법계품」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법회인 서다림회(逝多林會)에서 설해졌으며 그 장소는 기원정사(祇園精舍)의 중각강당(重閣講堂)이었다.¹⁶⁾

80화엄에서 선재동자의 53선지식 순례로 펼쳐지는 「입법계품」은 보살의 수행단계 52위를 의미하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중심으로 한 보살도의 실천을 담고 있다. 다음의 글에서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나서게 된 순례 동기가 잘 나타나 있다.

“선재동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복성의 동쪽 사라숲에 있는 탑 아래에서 문수보살이 법문을 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문수보살을 찾아갔다. 부처님 법에 대한 문수보살의 법문을 듣고 선재는 자신의 모습이 부처님과 너무 다른 점을 발견하고 반성을 하였다. 선재는 자신이 어리석고 교만하며 탐내고 성내는 마음이 많아서 생사고통의 성에 갇혀 있음을 깨닫고 해탈의 길인 보살도를 걷기로 결심하였다. 즉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발심을 하였던 것이다. 문수보살은 선재에게 부처님처럼 되는 데는 지혜가 구축해야 한다면서 지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선지식을 찾아가 법문을 듣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선재는 문수보살의 가르침대로 德雲比丘 선지식을 만나러 남쪽으로 길을 떠났으며, 계속되는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해 보현보살 선지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53선지식을 만나서 해탈법문을 듣게 된다. 선재는 보현보살에게서 보현행원을 실천하기로 서원하고 법계에 드는 깨달음의 여정이 일단 끝나고 있다.”¹⁷⁾

이와 같이 「입법계품」에서는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 문수보살이 선재동자에게 선지식 찾기를 권고한다.¹⁸⁾ 선지식 순례의 여정은 문수보살의 설법인 십신(十信)에서 출발하여 보현보살의 설법인 묘각(妙覺)에 이르기까지 보살의 수행계위 52위를 거친다. 하지만 화엄경에서 삼현십성(三賢十聖)인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십지(十地)

16) 澄觀 撰, 「入法界品」, 大方廣佛華嚴經疏 卷54, (大正藏 35, p.907下). “二會名 約處名逝多林園重 閣會 林名戰勝以表依人 園名給孤用表悲厚 重閣之義以顯二智互嚴 悲智並爲能證.”

17) 해주, 앞의 글, 417쪽.

18) 가산 이지관 편저, 『伽山 佛教大辭林』권13(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11), 1105쪽. “선지식은 악을 버리고 선을 실천하여 불도를 성취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 선지식(善知識)·선우(善友) 등이라고도 한다.”; 무비 편, 『화엄경, 8』(서울: 민족사, 1994), 130쪽. 문수보살이 선재동자에게 선지식 찾기를 권하는 내용이다. “착하고 착하다. 착한 남자여, 그대가 이미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고 보살의 행을 구하는구나. 착한 남자여, 어떤 중생이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니와 마음을 내고 또 보살의 행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니라. 착한 남자여, 온갖 지혜의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결정코 선지식을 찾아야 하느니라. 착한 남자여, 선지식을 찾는 일에 고달프고 게으른 생각을 내지 말고, 선지식을 보고는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선지식의 가르치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고, 선지식의 교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라.”

가 제시되어 있고¹⁹⁾ 십신과 등각, 그리고 묘각에 대해서는 사실상 설하고 있지 않다.²⁰⁾

다음의 〈표 1〉, 〈표 2〉, 〈표 3〉, 〈표 4〉는 각각 선지식의 해탈법문인 십주위(十住位)·십행위(十行位)·십회향위(十廻向位) 그리고 십지위(十地位)에서 선재동자가 실천 행을 통해 배운 주요내용을 실었다.

먼저 십신(十信)에 이어 십주의 지위 오르는데 만나는 선지식인 덕운비구, 해운비구, 선주비구, 미가장자, 해탈장자, 해당비구, 휴사우바이, 비목구사선인, 승열바라문, 자행동녀이다. 수행 계위에 따른 선지식에게 배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십주위 선지식으로부터 배운 주요내용

수행 계위	수행위	선지식	배운 주요내용 ²¹⁾
십주위	초발십주	덕운비구	보리심을 낸다.
	치지주	해운비구	보살도를 배우기 시작한다.
	수행주	선주비구	일체법을 관할 수 있는 명정(明淨)의 지혜를 증장한다.
	생귀주	미가장자	생사를 분별하고 열반(涅槃)을 분별한다.
	방편구족주	해탈장자	문법(聞法)의 지혜에 의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방편을 구축한다.
	정십주	해당비구	찬불이나 화불의 소리를 들어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불퇴주	휴사우바이	불(佛)이나 법(法)이나 보살이 있다 혹은 없다 하는 소리를 들어도 퇴전하지 않는다.
	동진주	비목구사 선인	신·구·의 삼업(三業)이 동자(童子)와 같이 순진하게 된다.
	법왕자주	승열바라문	어떤 법에도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는다.
	관정주	자행동녀	왕자가 관정식에서 왕위에 오르듯이 일체종지를 얻는다.

다음은 선재동자가 십행위 선지식인 선견비구, 자재주동자, 구족우바이, 명지거사, 법보계장자, 보안장자, 무염족왕, 대광왕, 부동우바이, 변행외도로부터 배운 주요내용이다.

〈표 2〉 십행위 선지식으로부터 배운 주요내용

수행 계위	수행위	선지식	배운 주요내용 ²²⁾
십행위	환희행	선견비구	큰 시주(施主)가 되어 일체를 버리고 언제나 후회 없이 베풀어 다른 사람을 환희케 한다.
	요익행	자재주동자	깨끗한 계율을 지켜, 모든 마(魔)를 굴복시키고, 일체중생이 위없는 계율을 세우게 하여, 물러섬이 없게 하며, 자타(自他)를 유익하게 한다.
	무위역행	구족우바이	인욕(忍辱)을 닦게 하여 노여움을 버리고, 자타를 해치지 않으며, 원한을 능히 참게 한다.

19) 십주는 「보살십주품(菩薩十住品)」, 십행은 「공덕화취보살십행품(功德華聚菩薩十行品)」, 십회향은 「금강당보살십회향품(金剛幢菩薩十廻向品)」, 십지는 「십지품(十地品)」이 있다.

20) 정병삼, 「화엄경 깨달음의 단계」 『석림』30(서울: 동국대학교 석림회, 1996), 18쪽.

21) 정병삼, 위의 글, 21-22쪽.

	무굴요행	명지거사	수행을 무량겁(劫) 점진하여 진리를 구하고 생을 제도하여 널리 선법을 행 한다.
	무치란행	법보계장자	항상 바른 마음으로 살면서 정념(正念)하여 산란함이 없이 일체의 진리에 있어 어지럽게 하지 않는다.
	선현행	보안장자	일체법에는 소유하는 것이 없음을 알고 삼업(三業)을 없애어, 집착과 속박됨이 없이 일체중생을 교화시킨다.
	무착행	무염족왕	부처를 공양하고 진리를 구하여 마음에 싫어함이 없이, 제법을 관하여 일체의 집착을 없게 한다.
	난득행	대광왕	선근 지혜의 법을 존중하고 모두를 이루어, 이것으로 하여금 더욱 자타의 이(利)를 닦는다.
	선법행	부동우바이	여러 가지 선법을 성취하여, 정법을 수호하고 부처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진실행	변행외도	부처의 진실한 설법을 성취하여, 설한 바와 같이 능히 행하고, 부처가 행한 바와 같이 능히 설하여, 말과 행동이 상응하여 따르게 한다.

다음은 선재동자가 십회향위 선지식인 육향장자, 바시라선사, 무상승장자, 사자빈신 비구니, 바수밀다녀, 비슬지라거사, 관자재보살, 정취보살, 대천신, 안주신으로부터 배운 주요내용이다.

〈표 3〉 십회향위 선지식으로부터 배운 주요내용

수행 계위	수행위	선지식	배운 주요내용 ²³⁾
십회향위	구호일체중생이중생상회향	육향장자	육바라밀을 행하고 무량한 선근을 닦는다.
	불괴회향	바시라선사	삼보에 불괴의 신을 얻어 그 선근을 일체처에 회향한다.
	등일체불회향	무상승장자	수순해서 삼세제불의 회향을 배우고 그 선근을 보살과 중생에 회향한다.
	지일체처회향	사자빈신 비구니	모든 선근을 닦고 그 공덕의 힘을 일체처에 이르게 하여 모든 중생이 선근을 따라 기뻐하며 그 선근을 회향하여 제불세계를 장엄한다.
	무진공덕장회향	바수밀다녀	모든 부처나 중생의 선근을 따라 기뻐하며 그 선근을 회향하여 제불세계를 장엄한다.
	수순일체견고선근회향	비슬지라 거사	대비(大悲)로서 모든 견고한 선근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여 자타가 모두 무상도를 이루도록 한다.
	등심수순일체중생회향	관자재보살	부처와 같은 평등심으로 무량의 선근을 행하고 중생을 위해서 무상의 복전이 된다.
	여상회향	정취보살	세계에도 중생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진여의 법문에 이르는 무량무변의 선근으로 회향한다.
	무박무착해탈심회향	대천신	어떤 선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상(相)에 얽매이지 않고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 해탈심으로 모든 선근을 회향한다.
	법계등무량회향	안주신	널리 법을 베풀고 대자비를 내어 중생을 보리심에 안주시킨다.

22) 최효순, 『화엄경』 선재동자 구도행의 교육적 의미, 『한국교육학연구』22(3)(서울: 안암교육학회, 2016), 341쪽.

다음은 선재동자가 십지위 선지식인 바산바연저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희목관찰중생주야신, 보구중생묘덕주야신, 적정음해주야신, 수호일체성주야신, 개부수화주야신, 대원정진력주야신, 람비니임신, 석녀구과의 각각 수행위의 명칭을 설명한다. 십지의 수행위는 환희지·이구지·발광지·염혜지·난승지·현전지·원행지·부동지·선혜지·법운지로서 각 지(地)에 해당하는 보살행과 마음가짐 등이 설해 있다.

〈표 4〉 십지위 선지식으로부터 배운 주요내용

수행 계위	수행위	선지식(스승)	배운 주요내용 ²⁴⁾
십지위	환희지	바산바연저주야신	보살이 초지(初地)에 들어감으로 해서 선법(善法)의 맛을 볼 수 있다.
	이구지	보덕정광주야신	열 가지의 좋은 일(十善道)을 행함으로써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발광지	희목관찰중생주야신	널리 그리고 많이 배워 중생들에게 진리를 설(說)해서 길을 밝게 비춰줄 수 있다.
	염혜지	보구중생묘덕주야신	보살의 위신력과 덕이 점점 더 치성한다.
	난승지	적정음해주야신	공덕의 짐이 왕성해져서 어떤 마구나라도 감히 그 힘을 무너뜨릴 수 없다.
	현전지	수호일체성주야신	모든 마장(魔障)이 소멸되어 보살의 도법(道法)이 나타나 앞에 가까이 있다.
	원행지	개부수화주야신	삼계를 벗어나 멀리 법왕의 지위에 가까이 있다.
	부동지	대원정진력주야신	천마(天魔)나 섭문(涉門) 바라문 등 그 누구도 보살의 원(願)을 동요시킬 수 없다.
	선혜지	람비니임신	지혜가 더욱 밝아지고 유연해진다.
	법운지	석녀구과	시방(十方)의 무량한 세계에 법우(法雨)를 일시에 자재하게 내릴 수 있다.

다음은 선재동자가 등각위 선지식인 마야부인, 천주광녀, 변우동자, 지중예동자, 현승우바이, 견고해탈장자, 묘월장자, 무승군장자, 적정바라문, 덕생동자와 유덕동녀, 미륵보살을 친견하였다. 등각(等覺)에서 ‘등’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뜻으로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등각의 지위는 부처님의 원만한 위없는 지혜, 그 깨달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수행계위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구경각(究竟覺)이라고도 부른다.

23) 정병삼, 앞의 글, 24-25쪽.

24) 이행구, 「화엄경에 나타난 보살사상 I」 『불교학보』 31(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4), 94-95쪽.

III. 미래사회와 역량

현재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우리 앞에 전개될 미래 사회는 변화의 양상이 다양하고 급속하여 예측이 불가능하며,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전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세대가 미래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사회의 성공적인 삶과 관련하여 대두된 개념이 바로 역량이다. 역량이란 개념은 McClelland가 최초로 제안한 것으로, 그는 학문적 적성이나 지식이 중심이 된 검사가 성공적인 삶이나 직업 수행을 예언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지능보다는 역량을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⁵⁾ 현재 미래사회나 교육과 관련하여 논의, 제시되고 있는 역량은 이 McClelland의 초기 개념을 연구,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역량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UNESCO IBE의 역량 개념

UNESCO IBE(2016)는 역량을 노하우, 일반 역량, 상황적 역량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노하우 역량은 인지적, 행동적, 기술적 노하우를 포함하는 일종의 콘텐츠이며, 실행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말한다. 둘째, 일반적 역량은 여러 곳에 적용되며 특정 맥락 안에서 의미가 나타나고, 실행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협업 능력, 자기조절력 등이다. 셋째, 상황적 역량도 실행할 수 있는 잠재능력으로, 특정 상황에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

2. OECD의 역량 개념

OECD(2005)는 DeSeCo 연구를 통하여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회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측면만이 아니라 비인지적인 측면도 포함되는 핵심역량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OECD는 역량을 인간의 삶, 삶의 질과 관련짓고, 인지적인 능력 뿐 아니라 동기적, 윤리적, 사회적, 행동적 영역까지도 포함하여 역량을 정의하였다. 즉 역량은 복잡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이며, 개인의 특성, 학습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 가치와 신념체계, 습관과 여타의 심리적 특성까지를 포

25) 소경희,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교육과정 연구』 25(3)(서울: 한국 교육과정학회, 2007), 4쪽.

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율적인 행동능력’, ‘도구 활용 능력’, ‘이질적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능력’의 세 가지 범주로 핵심 역량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역량’ 개념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OECD는 DeSeCo 프로젝트를 발전시킨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The OECD Education 2030”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미래사회를 2030으로 상정하고 역량을 특정 상황에서 지식, 스킬, 태도와 가치를 활용하는 능력이고, 행동은 이런 역량을 발휘하여 행하는 것으로 도식화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²⁶⁾



〈그림 1〉 OECD Education 2030 개념 틀(OECD, 2016)

위 개념 틀에서 지식은 사실, 개념, 아이디어, 이론 등을 말하며, 학문적 지식, 학문 간 지식, 실천적 지식으로 나뉜다. 여기서 실천적 지식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특정 스킬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 즉 노하우를 포함한다.

스킬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지칭한다. ‘인지적, 메타인지적 스킬’, ‘사회, 정서적 스킬’, ‘신체, 실천적 스킬’을 포함한다. 여기서 ‘메타인지적 스킬’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정서적 스킬’은 사고, 감정, 행동이 일관성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며, 균형 잡힌 성격을 갖도록 하고 좋은 인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돕는다.

태도와 가치에서 태도는 아이디어, 사람 또는 상황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경향성과 마음을 뜻하고, 가치는 특정한 신념,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원칙을 의미한다.

26) 이미경 외 6인, 앞의 책, 12-14쪽.

3. 미국심리학회의 역량 개념

학자들도 미래 사회와 연관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탐구하였다. 미국 심리학회(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를 대표하여 발달심리학자인 Roberta M. Golinkoff와 심리학자인 Kathy Hirsh-Pasek(2016)는 미국 심리학회지에 지난 40년 동안 실린 수백 건의 논문을 검토하였고, 저자 자신들의 책 13권을 종합하여 만든 ‘성공하는 아이로 키워내는 방법, Becoming Brilliant: What Science Tells Us About Raising Successful Children’을 발표하였다.²⁷⁾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라고 일컬어지는 Roberta와 Kathy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4차 산업시대 미래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은 읽기와 쓰기, 수학 같은 하드 스킬 뿐 아니라 이러한 학문적 성취의 기반이 되어줄 소프트 스킬인 6C 역량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는 여전히 하드 스킬에 집착하지만, 소프트 스킬은 학교와 직장 및 더 큰 사회적 장에서 성공의 핵심요소라는 것이다. 이들이 찾아낸 소프트 스킬인 6C 역량은 협력, 의사소통, 콘텐츠,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 자신감이다. 또 이들은 6C 역량의 발달단계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다.

〈표 5〉 6C 역량과 발달 단계

단계	협력	의사소통	콘텐츠	비판적사고	창의적 혁신	자신감
4	함께 만들기	공동의 이야기하기	전문성	증거 찾기	비전 품기	실패할 용기
3	주고받기	대화하기	연관 짓기	견해 찾기	자신의 목소리 내기	위험 감수하기
2	나란히	보여주고 말하기	폭넓고 얕은 이해	사실 비교	수단과 목표 찾기	자리 확립하기
1	혼자서	감정 그대로	조기학습과 특정상황	보는 대로 믿는	실험하기	시행착오 겪기

출처: 로베르타 골링크프, 캐시 허시-파섹(2018), 최고의 교육, 30쪽.

Roberta와 Kathy는 그동안은 “무엇을 배우느냐”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해졌다면서 우리의 관심을 하루 속히 역량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놀이, 특히 자유놀이가 6C 역량을 얻고 연습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학교, 집,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학습을 위한 놀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7) 김선아, 앞의 책, 30쪽.

4. 우리나라의 역량 개념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3년(2002-2004)에 걸쳐 OECD의 핵심역량 개념을 교육에 반영한 “국가 수준의 생애능력 표준 설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었다.²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을 위해 창의력, 갈등관리, 문제해결력, 협동과 봉사,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적극적 시민성, 예술 문화적 감성 등과 같은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⁹⁾ 이후 역량에 대한 연구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³⁰⁾ 마침내 2015년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³¹⁾

교육부(2015)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역량을 도입했으며, 이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역량은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핵심역량은 아래와 같다.

- 1)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2)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3)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4)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5)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 6)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28) 김안나 외 4인,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연구』(한국: 한국교육개발원, 2003), 54쪽.

29) 광병선(2009), 「미래형 교육과정을 생각한다.」 『교육정책 포럼』통권 188(한국: 한국교육개발원, 2009), 4-7쪽.

30) 이미경 외 6인, 앞의 책.

31) 교육부, 앞의 책, 2쪽.

이상에서 살펴본 역량 개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교육에 적용하여 목표와 방법 영역에 포함하고 있지만, 아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교육부가 제시한 역량에 대해서 이연선(2014)³²⁾, 이찬승(2018c)³³⁾ 등은 핵심 역량만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여 지식 습득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으며, 밖으로 드러난 수행과 행동을 중시하고 있어서 이해와 사고, 성찰, 가치 판단 등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UNESCO가 제시한 역량 개념도 실행력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OECD의 역량 개념은 초기에는 다소 추상적이었으나, 2030에서는 인지적, 정의적인 요소를 모두 아우르고, 지식과 가치 및 태도는 물론 실행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 포괄적인 역량이 특정 상황에서 실제로 실행되기를 기대하면서도, 무엇을 위해서 역량을 실행하는지 그 목적은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Roberta와 Kathy가 제시한 역량은 논문과 저술을 분석하여 제시한 개념이라서 미래사회를 고려해서 연구해온 여타의 역량 개념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그들이 제시한 6개 역량도 OECD가 제시한 역량과 거의 유사하다.

한편 우리나라 교육부가 규정하고 있는 역량은 개인과 공동체 및 인간을 두루 아우르고, 지식과 감성은 물론 정보처리와 의사소통 등과 같은 기술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역량 개념을 교육, 특히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과 연계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역량으로 정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부의 역량이 OECD 역량보다 자신과 공동체, 인류에까지 포괄하고 더 가치 지향적이다.

IV. 선제동자의 구법 행위에 나타난 역량 탐색

1. 선제동자의 구법 행위에 나타난 역량

1) 십주위에 나타난 역량 : 초발심

십주위는 보살 수행 52계위 중에서 십신(十信) 이후부터 제11위에서 제20위까지 해당된다. 여기서는 보살이 초발심(初發心)을 내면 바로 십주위의 초지에 입성하여 어디

32) 이연선,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탐색: 역량중심이 아닌 역량 통합 교육과정으로」『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4년 3월 4일자 칼럼(서울: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4), 1-3쪽.

33) 이찬승, 「학교교육의 목표-핵심역량 함양에 대한 긴급 문제 제기」『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8년 1월 18일자 칼럼(서울: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8), 1-9쪽.

에도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완전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보았다. 즉, 깨달음을 구하고자 마음을 내는 그 자리가 곧 부처님이며 이는 지혜와 자비를 두루 갖추고 있음을 상징한다. 따라서 십주위에 나타나는 선재동자의 역량은 “초발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선재동자가 문수보살로부터 선지식 만나기를 권유받고 처음으로 덕운 비구를 친견 하고서 다음과 같이 법을 물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내지 어떻게 해야 보현의 행을 빨리 원만케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듣자온즉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자비하신 마음으로 말씀하여 주소서. 어찌하오면 보살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성취할 수 있나이까?”³⁴⁾

선재동자가 덕운 비구에게 묻는 내용은 OECD가 제시한 역량 중에서 기술-메타인 지적 기술에 해당한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선지식의 법을 들으라.”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따라 선지식을 찾아 나선 행위는 지식-실천적 지식 역량과 같다. 뿐만 아니라 십주위에서 배운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퇴전하지 않는 신념은 태도와 가치의 역량과 같다.

십주위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행위는 무엇보다도 “21세기 스킬 파트너십(P21) 위원회”가 말한 최상의 성취와 연계된 정확한 학습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내재적 열정에 기반하여 배움에 도전하고 있고, 문수보살로 상징되는 외부의 집중적인 보살핌과 개별화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를 기대하는 우리나라 교육부가 제시한 역량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살도 실행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도 터득한다. 이는 일체중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재동자는 십주위에서 내재적 열정이 담긴 초발심으로 자신을 동기화하여, 깨달음을 얻으려는 신념을 가지고, 문수보살의 가르침에 따라 필요한 지식을 획득했다. 십주위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다양한 역량을 습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십주위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역량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바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초발심, 즉 목표설정이다. 여러 가지 역량 개념을 살펴보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들어 있지 않다. P21의 최상의 성취, 6C의 창의적 혁신에 포함된 비전 품기와 유사한 개념일 수 있으나, 여기서의 성취는 단기적이고 도구

34) 무비 편, 앞의 책, 131쪽.

적인 성취이다. 따라서 선재동자가 설정한 깨달음을 얻어 보살도를 행하려는 가치지향적인 목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의 지혜를 성취하고자 발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수행(禪修行)을 시작하는 초심자들의 교재 『좌선의』의 첫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菩薩은 먼저 큰 慈悲의 마음을 일으키고 큰 誓願을 세우고 나서 三昧를 정밀하게 닦아야 하는데,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를 서원할지언정 자기 한 몸만을 위해서 해탈을 구해서는 아니된다.”³⁵⁾

이는 깨달음의 추구가 개인적 목적만이 아닌 사회윤리적인 목적을 담고 있으며, 무한 경쟁시대에서 배움의 의미와 그 교육적 가치에 깊은 시사점을 준다. 십주위 선지식인 해탈장자도 선재동자에게 “부처님과 같은 자리리타(自利利他)의 방편행”을 설하였다. 이처럼 십주위 선지식들은 선재동자가 처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발심을 일으키는가 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은 여타의 역량 개념의 범주/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십행위에 나타난 역량 : 일상에서의 실천

십행위는 보살 수행 52계위 중에서 제21위에서 제30위까지 해당된다. 십주위의 마지막 선지식인 자행동녀로 하여금 관정주를 얻고 불자로서 인가받고 십지위에서 배운 바를 실천하는 지위로 올라갔다. 여섯 가지 구체적 실천 행위인 보시·지혜·인욕·정진·선정·지혜의 육바라밀은 깨달음에 이르는 통로이다. 따라서 십행위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역량은 ‘일상에서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십행위에 대해 다음의 『法華玄義』에 잘 설명되어 있다.

“실상의 참된 광명은 불가사의하니 다시 열 번의 지혜로 십품의 무명을 끊어낸다. 하나의 행이 일체의 행이니, 매 순간 진보하여 평등한 법계해의 모든 바라밀에 흘러들어가 상황에 따라 성장하며 자리와 화타의 행을 펼치니, 공덕이 허공과 같다. 그러므로 십행위라고 한다.”³⁶⁾

35) 김호성, 「보조선의 사회윤리적 관심」 『동서철학연구』 8(서울: 한국동서철학회, 1991), 142쪽 재인용.

36) 『法華玄義』 권5(大正藏 33, p.734中27). “實相眞明 不可思議 更十番智 斷破十品無明 一行一切行 念念進趣 流入平等法界海 諸波羅蜜 任運生長 自行化他 功德與處空等 故名十行位也.”

이와 같이 하나의 행이 모든 행과 연결되어 있고 원만하게 그 행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위, 계율을 잘 지켜 모든 번뇌를 끊으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위,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거나 후회하지 않고 인욕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해롭게 하지 않으며 집착하지도 않는 행위, 계속적으로 진리를 찾고 선법을 구하는 행위, 확고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삼업이 청정하게 바른 법을 교화하는 행위, 선행을 숭선수범하는 행위,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행위,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행위, 정법을 수호하여 불심(佛心)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행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게 말과 행동을 하는 행위이다.

십행위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역량은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아는 노하우로 OECD의 지식·실천적 지식 역량과 같다. 또 가치와 태도 역량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육바라밀을 행동하게 되는 경향성과 마음, 육바라밀에 대한 신념과 그렇게 하는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 등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도록 하는 스킬-사회·정서적 스킬도 있다.

선재동자가 십행위에서 보여주는 역량은 여러 곳에 적용되고 특정 맥락 안에서 의미가 있는 문제해결능력, 자기 조절력 등을 내포하고 있어서 UNESCO가 제시한 노하우, 일반 역량, 상황적 역량과 매우 유사하다. 또 십주위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부가 제시한 역량과도 매우 유사하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고, 지식을 융합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실천적 지식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십행위에서는 자신을 이롭게 하고 특히 보시와 인욕 행위를 통해 타인도 이롭게 하는 직접적인 중생의 교화(教化) 실천이 나타난다. 이러한 행위는 십주위에서의 배운 것을 나만이 아닌 타인까지 미치도록 실천하는 행위로, 여타의 역량 개념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다. 다만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우리나라 교육부의 공동체 역량이나 6C의 협력-함께 만들어가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3) 십회향위에 나타난 역량 : 집착 없는 회향

십회향위는 보살 수행 52계위 중에서 제31위에서 제40위까지 해당된다. 십회향위에서는 보살이 십신, 십주위, 십행위의 수행에서 얻은 지혜나 여러 가지 능력들을 포함한 일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널리 돌려주는 마음이며 이를 회향(廻向)이라고 한다.

이러한 회향사상은 “선행과 선보(善報)의 초월”³⁷⁾로 표현된다. 또한 이는 보살도의 완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따라서 십회향위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역량은 ‘집착 없는 회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십회향위의 열 가지 회향에 대해 다음 「십회향품」에 잘 나타나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의 회향이 열 가지가 있나니, 삼세의 부처님들이 함께 연설하신다. 어떤 것이 열 가지인가. 하나는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상(相)을 여의는 회향이요, 둘은 깨뜨릴 수 없는 회향이요, 셋은 모든 부처님과 평등한 회향이요, 넷은 온갖 곳에 이르는 회향이요, 다섯은 다함이 없는 공덕장 회향이요, 여섯은 일체 평등한 선근에 들어가는 회향이요, 일곱은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따라주는 회향이요, 여덟은 진여의 모양인 회향이요, 아홉은 속박도 없고 집착도 없는 해탈 회향이요, 열은 법계로 들어가는 무량한 회향이다.”³⁸⁾

이처럼 선재동자가 십회향위 선지식들에게 대자비심으로 회향하는 능력을 체득하였다. 한편 어떠한 상(相)을 내지 않고 자신의 선근(善根)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동은 상호의존과 상호존중의 관계에서 무소유의 삶과 아름다운 공동체 실현을 위한 방법일 수 있다.

십회향위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행위는 십행위에서 자신이 배운 육바라밀을 행하고 아낌없이 베풀어서 일체 중생을 계도(啓導)하는 것이다. 이것은 UNESCO, OECD에서 제시한 역량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우리나라 교육부가 제시한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에서 조금 엇볼 수 있다.

4) 십지위에 나타난 역량 : 선업 정진

십지위는 보살 수행 52계위 중에서 제41위에서 제50위까지 해당된다. 십주·십행·십회향의 과정을 거쳐 오른 십지는 성불을 구한다면 누구라도 십지보살의 단계에 따라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는 보살도의 실천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십지 단계는 보살수행의 정점이기도 하다.

제1의 환희지에서 제10의 법운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지에서 십바라밀을 실천하는데, 환희지는 보시바라밀다가 더욱 수승하고, 이구지에서는 지계바라밀다가 더욱 수승

37) 권탄준, 『『華嚴經』「十廻向品」의 三種廻向』 『보조사상』27(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07), 455쪽.

38) 『大方廣佛華嚴經』第23卷「十廻向品」(大正藏 10, p.124中-下).

하고, 발광지에서는 인욕바라밀이 더욱 수승하고, 염혜지에서는 정진바라밀이 더욱 수승하고, 난승지에서는 선정바라밀이 더욱 수승하고, 현전지에서는 반야바라밀이 더욱 수승하고, 원행지에서는 방편바라밀이 더욱 수승하고, 부동지에서는 원바라밀이 더욱 수승하고, 선혜지에서는 力바라밀이 더욱 수승하고,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추는 제10의 법운지에서는 지혜바라밀이 더욱 뛰어나다고³⁹⁾ 설하였다.

이러한 10바라밀은 사섭법과 사무량심과 더불어 자리리타를 실천하는 핵심 교의(敎義)가 되며, 마땅히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지켜야할 도리에 관한 도덕 윤리가 함의되어 있다.⁴⁰⁾ 이를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 불교유아교육에서 불성 발현을 목적으로 사섭법을 교육현장에서 접목한 교육과정을 통해 일상에서 인성적 지침이 될 수 있다.⁴¹⁾ 따라서 십지위에 나타난 역량으로는 ‘선업(善業) 정진(精進)’을 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초지인 환희지가 원만히 구족할 때만이 그 다음 단계 제2지로 갈 수 있으며, 이는 수행위에 따라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나 행위들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십지위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역량은 여타의 역량 개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자기 인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OECD 스킬-메타인지적 스킬과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차원이 나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보살행, 즉 선업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다.

2. 미래사회의 역량에 주는 시사점

선재동자의 구도행에 나타난 역량과 UNESCO, OECD, 심리학자들, 우리나라 교육부가 제시한 역량은 유사한 역량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선재동자의 구도행에는 여타의 역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량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은 선재동자의 구도행에서 나타난 역량과 여타의 역량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량의 유사한 점을 찾아보고, 선재동자의 역량을 통해 미래사회의 더 나은 삶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39) 해주, 『화엄의 세계』(서울: 민족사, 2001), 96-106쪽.

40) 강기선, 『『화엄경』「십지품」에 담긴 교학사상』, 『철학논총』 93(경북: 새한철학회, 2018), 1, 4쪽.

41) 김혜순,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방향 탐색」, 『불교상당학연구』5(1)(서울: 한국불교상당학회, 2013), 7-8쪽.

1) 지식, 실천적 지식의 가치 인정

선재동자는 구도행의 첫 단계인 십주위에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지식, 지혜를 얻었다. OECD와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기초 및 전문지식을 역량에 포함하고, 6C에서도 지식을 콘텐츠-전문성이라는 개념으로 역량에 포함하고 있다. 역량은 지식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소리가 있지만, 지식 습득이 역량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또한 역량은 어떤 사실이나 개념으로서의 지식뿐 아니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 선재동자의 십행위에서는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의 육바라밀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또 OECD의 지식-실천적 지식, 6C의 협력과 의사소통 등,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부의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의사소통 역량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2) 자신에 대한 성찰, 메타 인지의 필요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학습에 대한 동기는 자신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한다. 선재동자의 수행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구도행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또 도움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선지식을 방문하고 점점받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OECD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어떤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를 인식하는 것을 메타인지 기술 역량으로 포함하였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자기관리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성찰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성해 가는데 필수임을 알 수 있다.

3) 초발심, 목표 설정의 가치 추구

“먼저 나아갈 바의 목표를 세우고(적멸도량회), 그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한 후(보광법당회), 차츰 닦아 하늘에 이르러 주·행·회향·지 등의 순서대로 불지(佛智)에 오른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경지를 여의지 않으면서도 다시 중생계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⁴²⁾

42) 정순일, 『화엄경』의 성립과 구조적 특징』 『범한철학』 24(서울: 범한철학논문집, 2001), 265-266쪽.

선재동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문수보살의 가르침에 따라 53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현대 사회를 사는 보통의 사람들은 항상 상대를 의식하는 경쟁 속에서, 물질을 더 많이 구축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가치를 지향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가치있는 삶을 살기도 쉽지 않다. 하물며 어떻게 변화해 갈지도 모르는 미래사회에서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떤 삶이 바람직한지를 알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선재동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초발심을 가진 것처럼, 성장과정에 있는 이들은 먼저 깨우친 이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가치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지금의 즐거움과 행복감 추구하고 함께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미래사회에 더욱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4) 회향,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삶의 지향

선재동자는 십회향위에서 자신이 배운 바를 중생을 위해 회향한다. 이런 자리리타정 신은 개인적인 성취와 공동체적인 성취에 함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 모든 존재가 나와 너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고 상대의 근기에 맞게 이끌며 자신이 그에 적응하는 배려심과 사려 깊은 태도가 있을 때만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회향과 같은 사회윤리적인 행위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규정되는 현대사회에서는 물론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사회에서 더욱 가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 교육부의 역량에는 공동체를 세계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그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역량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타의 역량에는 이와 같은 사회윤리적인 회향 개념이 미흡하다. 추후의 역량 개념에는 회향과 같은 사회윤리적인 역량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5) 선업 정진, 꾸준한 노력

선재동자는 십지위에서 각 단계마다 쉼 없이 노력하며 수행심을 어느 때라도 놓지 않는다. 이런 정진의 태도는 자신이 세운 목표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동반하기 때문에 배움의 욕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정진과 같은 개인윤리적인 행위는 더욱 개인이 존재론적인 삶을 영위하고 현재의 삶에 충분히 기

능하는 사람으로서 나아가도록 할 수 있다. 특히 가치 있는 목표는 정진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때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또한 구도행을 제한한 문수보살에 대한 신뢰는 더욱 정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정진과 관련해서는 가치 있는 목표 설정, 문수보살과 같은 안내자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교사들이 문수보살과 같은 안내자의 역할을 하여 정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정진, 노력을 하는 일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성적과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와 같은 단기적인 목표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 복잡하고 알 수 없는 미래사회, 더욱 개별화될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은 미래사회에서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의 도움으로 정진할 수 있을지 더욱 어려워진다. 로봇이 동반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어 함께 살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정진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6) 모든 존재에 대한 평등한 인식

선재동자는 성인이 아닌 “동자”이다. 그런데 참회와 발원을 통해 간절히 구도행을 실천했더니 보살도를 이루고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 의미는 어린 동자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교육에 주는 시사가 매우 크다. 어리거나 미숙한 자도 열심히 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재동자가 만나는 53선지식에는 보살을 포함하여 뱃사람·장자·의사·외도·비구니·여인·동자 및 동녀 등 여러 계층 사람이 망라되어 있다. 모든 분별상의 차별을 내려놓는 평등성의 발로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고, 누구에게서나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평등성의 가치는 선재동자가 보여주는 역량 이전에 「입법계품」이 담고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도 재화의 편중으로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같은 IT 의존생활이 더욱 급속화 될 미래사회는 그 편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어린 동자가, 일상의 주변 생활인으로 부터 의미 있는 배움을 얻어가는 과정 그 자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시사라고 할 수 있다.

V. 나오며

본 연구는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구도과정을 통해 선지식들로부터 배운 주요 내용에서 역량을 탐색하고 미래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UNESCO, OECD, 미국심리학회, 우리나라의 역량 개념을 살펴보고, 역량 개념에 대한 관심이 지속가능한 논의의 대상임을 확인하였다. 역량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특히 교육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불교적 관점에서 역량에 접근해보는 것이 의미 있음을 뒷받침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친견하고 점차로 보살도 수행을 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역량을 초발심, 일상에서의 실천, 집착 없는 회향, 선업 정진의 네 가지로 보았다. 아무리 좋은 학습이나 수행 과정이라도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꾸준히 정진하여 실천하기 어렵다. 그런데 선재동자는 처음 마음을 내는 발심의 인연을 잘 만나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정확히 이해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밀고 나아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선재동자의 구법 행위에 나타난 역량들은 여타의 역량 개념에 포함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지식과 실천적 지식, 자신을 성찰하는 메타인지 역량 등은 다른 역량에서도 유사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는 초발심이나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삶인 회향, 꾸준한 정진 등은 다른 역량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끝으로, 어린 동자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입법계품」의 설정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로부터의 배움으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믿음을 주며, 그 자체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평등성의 가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량을 넘어서 진정한 가르침이다.

참고문헌

- 『大智度論』(大正藏 25).
- 『法華玄義』권5(大正藏 33).
- 『南海寄歸內法典』(大正藏 54).
- 『翻譯名義集』(大正藏 54).
- 實叉難陀 制譯, 『大方廣佛華嚴經』(大正藏 10).
- 澄觀 撰, 『大方廣佛華嚴經疏』(大正藏 35).

- 가산 이지관 편저, 『伽山 佛教大辭林』권5,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3.
- _____, 『伽山 佛教大辭林』권13,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11.
- 강기선, 「『화엄경』「십지품」에 담긴 교학사상」, 『철학논총』 93(경북: 새한철학회, 2018).
- 강소연, 「불화와 함께 보는 경전이야기③-『화엄경』〈입법계품〉: 선재동자 이야기(1)-」, 『문학/사학/철학』37(서울: 한국불교사연구소, 2014).
- 고정은, 「아시아미술에 나타난 선재동자 구법이야기」, 『수완나부미』 2(1)(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2010).
-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15.
- 곽병선, 「미래형 교육과정을 생각한다」, 『교육정책 포럼』통권 188, 4-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9.
- 권은주 · 정도진, 「『화엄경』「입법계품」의 유아교육적 가치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105(충북: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7).
- 권탄준, 『華嚴經』「十廻向品」의 三種廻向, 『보조사상』27(전남,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07).
- 김안나 · 김태준 · 김남희 · 이석재 · 정희옥,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 체제 질 관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3.
- 김용덕, 「불교설화에서 동자(童子) 출현의 양상과 의미 연구」, 『실천민속학연구』15(경기도: 실천민속학회, 2010).
- 김찬성, 「화엄경 입법계품의 교육관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 김호성, 「보조선의 사회윤리적 관심」『동서철학연구』 8(서울: 한국동서철학회, 1991).
- 김혜순,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방향 탐색」, 『불교상담학연구』5(1)(서울: 한국불교상담학회, 2013).
- 나정, 「OECD 유아교육과정 유형에 비추어본 우리나라 유치원교육과정 특성」, 『아시아교육연구』10(2)(서울: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2009).
- 나정 · 이영림(범우), 「연봉동자상이 불교아동교육에 주는 시사점」, 『종교교육학연구』 52(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 무비 편, 『화엄경』 8, 서울: 민족사, 1994.
- 박부숙 · 이수경, 「불교에 기초한 인성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50(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 소경희,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25(3)(서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7).
- 안형관 · 전영숙, 「『화엄경』의 선지식과 현대의 교육적 의미」,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3(1)(경북: 한국동서정신과학회, 2000).
- 여은경, 「韓國 傳統時代의 童子信仰」, 『역사교육논집』13(대구: 역사교육학회, 1990).

- 이강옥, 「오세암 설화와 동자의 수행득도」, 『어문학』128(대구: 한국어문학회, 2015).
- 이미경 · 주형미 · 이근호 · 이영미 · 김영은 · 이주연 · 김종윤, 『21세기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OECD Education 2030-』, 한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 이연선,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탐색: 역량중심이 아닌 역량 통합 교육 과정으로」,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4년 3월 4일자 칼럼(서울: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4).
- 이찬승a, 「역량의 바른 이해와 역량교육의 바른 접근」,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8년 2월 8일자 칼럼(서울: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8).
- 이찬승b, 「역량 교육 관련 8가지 핵심 질문에 답하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8년 2월 22일자 칼럼(서울: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8).
- 이찬승c, 「학교교육의 목표-핵심역량 함양에 대한 긴급 문제 제기」,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8년 1월 18일자 칼럼(서울: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8).
- 이행구, 「화엄경에 나타난 보살사상 I」, 『불교학보』 31(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회, 1994).
- 임진광, 「불교경전에 나타난 동자상」, 『불교동자상』, 충북: 국립청주박물관, 2003.
- 정대련, 「화엄경 입법계품에 대한 교육적 조명」, 『교육철학연구』22(서울: 교육철학회, 1999).
- 정병삼, 「화엄경의 깨달음의 단계」, 『석림』30(서울: 동국대학교 석림회, 1996).
- 정순일, 「『화엄경』의 성립과 구조적 특징」, 『범한철학』 24(서울: 범한철학논문집, 2001).
- 조명렬, 「童子像으로 표현된 불교신앙」,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논문집』 8(경기도: 중앙승가대학교, 1999).
- 조서현, 「『화엄경』보살도가 가진 인성교육에서의 의의」, 『사회사상과 문화』20(서울: 동양사회사상학회, 2017).
- 최효순, 「『화엄경』 선재동자 구도행의 교육적 의미」, 『한국교육학연구』 22(3)(서울: 안암교육학회, 2016).
- 해주, 『화엄경의 세계』, 서울: 민족사, 2001.
- _____, 「『화엄경』의 선재동자」, 『불교학연구』7(서울: 불교학연구회, 2003).
- Andy, Hargreaves & Dennis, Shirley, *The Global Fourth Way*, 이찬승 · 홍완기, 『학교교육 제 4의 길』, 서울: 21세기교육연구소, 2015.
- Bernie Trilling & Charles Fadel, *21st Century Skills: Learning for Life in Our Times*, 한국교육개발원, 『21세기 핵심역량 -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스킬-』, 서울: 학지사, 2012.
- OECD, *The education 2030 conceptual learning framework as a tool to build common understanding of complex concepts*. OECD(unpublished), 2016.
-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A state leaders action guide to 21st century skills*:

A new vision for education, Tucson, AZ: Author, 2006.

Roberta M. Golinkoff & Kathy Hirsh-Pasek, *Becoming Brilliant: What Science Tells Us About Raising Successful Children*, 김선아,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형 인재를 만드는 최고의 교육』, 서울: 예문아카이브, 2018.

원고접수일: 2018년 11월 30일, 심사일: 2018년 12월 5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7일

연구자 소개: 나정

- ① 전공: 유아교육 / 소속과 직위: 동국대학교(경주) 불교아동보육학과 부교수
- ② 관심영역: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정책
- ③ 주요논저: 『OECD가 선정한 5가지 유아교육과정』,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유·보 통합 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공보육기관 운영의 불교적 요소에 관한 연구」
- ④ E-mail: nana34@hanmail.net

연구자 소개: 이영림(범우)

- ① 전공: 유아심리 / 소속과 직위: 동국대학교(경주) 불교상담학과 초빙교수
 - ② 관심영역: 불교와 인성, 상담 및 심리치유
 - ③ 주요논저: 「『법구경』을 통한 인성함양의 방향 모색: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불교생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심리치유를 위한 교육 방안」,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에서 '진정한 사람되기'에 관한 불교적 시선」
 - ④ E-mail: child-b@hanmail.net
-

Abstract

A Study on Competencies in Sudhana Ascetic Practices

Na, Jung·Lee, Youngrim(Ven.Beomwoo)

Dongguk University Gyeongju Camp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hat abilities are being pursued through Buddhist boy of Buddhism which has been a lamp of human life for over 2500 years, suggest the implications of its competencies of future society those abilities in the changing trend of times and the educational responses. In order to do this, we first examine the meaning of Buddhist boy and ascetic practices of sudhana within 「Gandavyuha-Sutra(入法界品)」of 『Avatamsaka Sūtra(華嚴經)』, we looked at the perspective of UNESCO, OECD,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d Korea suggest in relation to education competencies required for a future society. The competencies of sudhana is as follows. First, one's first mind, the second is practice in the daily, third, dedication without attachment, fourth is the good actions. Based on this, we have confirmed that they emphasize in common that the ascetic practices of sudhana and competency concept of the rest is knowledge especially practical knowledge competency and reflection on oneself, that is, meta-cognitive competency.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competencies should be included as a implication that the sudhana in the future society showed goal set-up such as one's first mind, a shared life with the community such as dedication, a effort, a preception of equality. This approach is a small attempt to assess whether the teachings of Buddhism can be sustained as a meaningful religion in human life, even in uncertain future society that is unpredictable.

Key words: future society, competency, 『Avatamsaka Sūtra(華嚴經)』, sudhana, ascetic practices